

“변이 바이러스 잡아라”… K-바이오, 범용 치료제 ‘총력전’

현대바이오, ‘제프티’ 치료제 확대
GC녹십자, 프랑스 오시백스와 맞손
SK바사, 범용 코로나 백신 임상 추진

최근 국내 바이오 업계는 바이러스 중 류나 변이에 국한되지 않고 작용하는 범용 치료제에 주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매년 변종을 거듭하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기존 감염병 대응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다. 바이러스의 빠른 변이 속도는 기존 단일 표적 치료제와 계절성 백신의 예방 효과를 반감시키고 내성 문제를 야기해 왔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무기화합 기반 약물전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한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발 전략을 공유했다.

제프티는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이다. 코로나19 임상 3상에서 바이러스 감소 수치, 빠른 증상 개선 등을 입증한 데 이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살인진드기병), 뎅기



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장.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열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서 적응증 확장 연구가 진행 중이다.

원천기술 개발자인 최진호 단국대학교와 석좌교수는 “세균 감염 질환에는 페니실린이라는 강력한 범용 무기가 존재하지만 바이러스 영역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범용 치료제가 부재하다”며 개발 배경을 짚었다.

이어 최진호 교수는 “바이러스가 의존하는 숙주를 표적하는 기존 치료법은 약효를 높이기 위해 투여량을 올리면서 간독성 등 부작용에 부딪혔으나, 30여 건의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7가지 검증 조건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러스 억제력이 뛰어나면서도 물에 녹지 않고 몸에 흡수되지 않아 약으로 쓰지 못했던 기존 구충제 성분 ‘니클로사마이드’의 한계를 독자적인 나노 전달체 및 코팅 기술을 활용해 체내 흡수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상 현장의 데이터도 확보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는 “살인진드기병은 국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하고 의료진 2차 감염 위험도 높지만 국내 승인된 치료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

포 실험 결과, 제프티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낮은 농도에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추진과 함께 베트남과 감염병 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4가지 혈청형을 가져 변이가 심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뎅기열 풍토병으로 매년 막대한 보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바이오는 베트남 보건당국 및 국립 열대병원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뎅기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초반 모멘텀으로 삼아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감염병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HLB랩은 독자적인 펩타이드 플랫폼 ‘AGM-380’을 통해 비임상 단계에서 광범위한 RNA 바이러스 정조준에 나섰다.

AGM-380은 바이러스 감염 세포의 세포막 및 세포 내 인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작용 기전을 가졌다. 인플루엔자는 물론 사포,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체에 대응하는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미 비임상 효능 및 기초 독성을 마치고 호주, 일본, 미국 등 글로벌 특허 등록을 완료한 HLB랩은 오는 2027년 약 747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글로벌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에서 차세대 핵심 주자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범용화 바람은 대형 제약사들의 차세대 예방 백신 플랫폼 전략과도 맞아 있다.

GC녹십자는 매년 유행하는 독감 변이주에 맞춰 백신을 재제조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프랑스 오시백스와 손잡고 차세대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백신에 바이러스의 변하지 않는 내부 단백질을 표적하는 기술을 결합해, 변이 독감과 신종 독감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막아내는 이중 면역 기전의 범용 백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글로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TI)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베코바이러스(코로나 계열) 전체를 정조준하는 범용 백신 파이프라인 ‘GBP511’ 글로벌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옴리클로’ 임상적 가치 알린다

내일 열리는 ‘세계알레르기학회’ 참가
퍼스트무버 경쟁력 앞세워 日 공략

셀트리온은 오는 15~18일 일본 교토 국제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알레르기학회(WAC2026)에 참가해 옴리클로 제품 경쟁력과 임상적 근거를 소개하고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WAC는 세계 알레르기 기구(WAO)가 주최하는 글로벌 알레르기·면역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일본알레르기학회(JSA) 및 아시아태평양 소아알레르기·호흡기·면역학회(APAPARI)가 공동 진행하는 합동 학술대회 ‘JSA/WAO/APAPARI Joint Congress 2026’으로 행사가 마련된 만큼, 전 세계 알레르기·호흡기·면역학 분야 의료 전문가 약 7000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전사회장에 마련한 기업 부스를 통해 일본 출시를 앞둔 세계 최초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인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와 경쟁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글로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역량을 함께 홍보해 제품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옴리클로는 지난 3월 일본에서 기관지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CSU),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적응증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약가 기준 등재를 거쳐 퍼스트무버 바이오시밀러로 출시를 준비중인 만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현지 의료진의 높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학회이튿날인 16일에는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치료 선택지 확대: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400여 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일

본 알레르기 진료 현장에서의 오말리주맙 활용 경험과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일본 알레르기 분야 권위자인 오쿠보 기미히로 교수(일본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합동 학술대회는 전 세계 알레르기 분야 석학과 의료진들에게 옴리클로의 우수한 치료 효능과 퍼스트무버로서의 경쟁력을 인지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일본에서 램시마, 하주마 등이 구축한 견고한 신뢰와 직판 인프라를 바탕으로 옴리클로 역시 일본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에서 우위적 입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설화수, 경북공서 ‘전통문화의 멋’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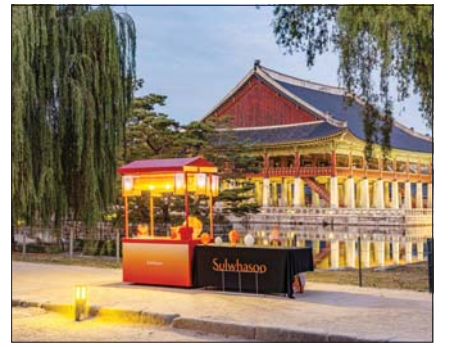
‘경북공 한복 연향’ 참여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와 전통 문화의 조화가 가을밤 경북공을 물들였다.

설화수는 지난 9~10일 열린 2026 가을 궁중문화축전 ‘경북공 한복 연향’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공 한복 연향’은 한복을 입고 고궁의 야경과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화당 1800명씩 총 3600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이 중 약 800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함께해 한국 전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설화수는 경회루 인근에서 브랜드 부스



‘설화수X경북공’

/아모레퍼시픽

를 꾸미고 방문객들에게 호박색 초롱을 제공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은은한 분위기를 갖춘 초롱을 든 관람객들이 고궁 곳곳을 거니는 풍경은 경북공의 밤 운치와 어우러지며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헌터라제 안전성 평가 고도화

IgE 항체 정밀 분석법 개발

GC녹십자가 희귀질환 치료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원인을 극미량 수준까지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약물 평가를 고도화하고 임상 개발 경쟁력을 높였다.

GC녹십자는 자사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법은 고감도 효소면역분석법을 기반으로 환자 혈액 내에서 헌터라제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IgE 항체만을 선별해 미량이라도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 헌터라제 투여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약물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해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헌터증후군은 체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돼 발생한다. 이 부족한 효소를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효소대체요법이 주요 치료법이다.

다만 효소대체요법과 같은 단백질 치료제는 환자 면역 체계가 치료제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 항약물 항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 중 IgE 항체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

/이청하 기자

비트, 효소 함량 10배 ‘몬스터 파워젤’ 출시

라이온코리아가 세탁세제 브랜드 비트에서 고급 액체세제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라이온코리아는 효소 함량을 최대 10배 적용한 ‘몬스터 파워젤’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액체 제형이며 기존 액체 제품 대비 효소 함량을 10배 강화해 한층 더 뛰어난 세척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세탁 고민에 맞춰 ‘10X 삶음파워’와 ‘10X 냄새케어’ 두 가지로 구성했다.

10X 삶음파워는 지우기 힘든 찌든때와 향변 얼룩, 초미세 오염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성분 더하고 섭취 편의성 높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능) 시장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하면서, 여러 기능성과 원료를 하나에 담고 섭취 편의성까지 높은 ‘멀티 솔루션’ 제품을 앞세운 웰니스 기업들의 이너케어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능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업들은 단순 개별 원료 중심에서 벗어나 면역·항산화·피부관절 등 복합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일상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형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라엘의 헬스케어 브랜드 ‘라엘 밸런스’는 질장 건강에 더해 면역과 항산화 기능까지 강화한 여성 유산균 제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 출시한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데 이어, 기능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지난 3월 출시한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액티브’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형 다변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바람은 주요 유통·제약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유한양행은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콘드로이친황산염 1200mg에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추출물, 생선 콜라겐 등 다양한 부원료를 배합한 ‘유한콘드로이친1200’을 선보였다.

정제와 액상을 결합해 한 병에 담아낸 이중 제형 제품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출시한 ‘슈퍼콜라겐 PDRN’은 정제(연어 유래 PDRN, 히알루론산, 글루타치온)와 액상(저분자 콜라겐, 비타민C)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제형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